

[미국] P2P 이용자의 음원 구입이 비이용자보다 30% 많고 미국인의 52%가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에 찬성

박경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 기관인 The American Assembly가 2013년 1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 보고서(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에 따르면, 미국 내 음악 구매량은 P2P 네트워크의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약 30% 더 많으며, 미국인의 54%가 불법적인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보고서 작성 배경

- 컬럼비아 대학 산하 연구 센터인 The American Assembly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Google의 후원을 받아 18세 이상의 미국인 2,303명과 독일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미디어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하고 소비하며 저작권 집행 전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1. 15. 발표함.
-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가 ‘복제 문화(copy culture)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산업계와 P2P 파일 공유 옹호자들은 P2P 파일 공유가 정말 창작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여 온 가운데 이번 설문 조사는 일반 대중의 파일 공유 현실 및 저작권 집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P2P 파일 공유가 콘텐츠 시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됨.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복제 문화’란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및 그 밖의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를 의미함.

■ 복제 문화의 확산과 온라인 파일 공유의 실제

- CD나 DVD를 통해서만 접하던 음악, 영화 등의 창작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나 파일 공유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복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중 약 79%가 디지털 음악 파일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약 1,900곡의 음악을 소장하고 있음. 미국인 전체 평균은 약 1,000곡 정도이며, 64세 이상의 경우 불과 14% 정도만이 음악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 이용자들의 온라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수는 비이용자들보다 많았으나 예상 외로 음원 파일을 구매하는 경우도 P2P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약 3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보다는 유료로 구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불법 파일 공유의 직접적 대체 수단인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미국인들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청취한다는 경우도 13%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유료 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함. 응답자의 46%는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불법 다운로드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힘.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미국인 중 15%는 여전히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미국인 전체의 8%에 해당하는 수치임.
-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 소유자의 69%는 모든 전자책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게임 콘솔의 경우도 미국 가정의 48%가 Xbox나 PlayStation과 같은 게임 콘솔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중 단 3% 정도만이 불법 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콘솔을 개조했다고 답함.

■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 정당한 파일 공유의 범위
 - 음악 파일을 소유한 미국인의 약 80%가 가족과의 공유를, 약 60%가 친

구들과의 공유를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보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음악 파일 소지자의 약 15% 정도였으며, 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것은 10%가,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4%만이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종류

- 미국인의 52%는 불법 파일 공유를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34%는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인의 51%가 경고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28%는 인터넷 속도 제한이나 특정 사이트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지지하였고, 6%만이 인터넷 접속 금지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힘.
- 제재의 방법으로 벌금 부과 방식을 지지하는 미국인 가운데 68%는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19%는 10달러 이하의 벌금을 과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1천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를 지지하는 경우는 9%,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는 단 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음반 업계나 영화사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1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남.

● 저작권 침해 예방 및 파일 공유의 합법화 관련 쟁점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정부가 개입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가 아니라고 답함. 특히 미국인의 69%는 저작권 집행을 위해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파일 공유가 합법화될 경우 창작자를 보상하기 위해 소액의 광대역 사용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55%가, 65세 이상의 37%가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P2P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달함. 적절한 수수료로는 평균 18달러 79센트 정도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평가

-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음반 산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P2P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합법적 채널을 통해서 음악을 구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로 인터넷 속도 제한, 특정 사이트 접속 금지 등을 포함한 Six Strikes 제도와 각종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의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제도의 실시 전에 파일 공유의 제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piracy.americanassembly.org/wp-content/uploads/2013/01/Copy-Culture.pdf>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3/01/new-music-survey-p2p-users-buy-the-most-no-one-wants-disconnection-penalties/>